

환경은 우리가 먼저!



이은수
토질및기초기술사

위정자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건설사업을 친환경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강을 뒤집어엮어도, 산허리를 깎아 길을 내고 흐르는 강과 바닷가 갯벌을 막아 물을 가두어도 환경영향평가를 해보니 별 문제가 없단다. 뿐인가. 공장을 세우고 굴뚝에서 연기를 내뿜어도 녹색성장이라며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한다. 심지어 저들의 깃발도 녹색이다. 과연 그들의 주장을 그냥 믿어도 좋을까? 하도 속아서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쏜다고 해도 곧이듣질 않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내가 대학을 다닐 때 '건설은 곧 파괴다.'라는 강의를 들은 기억이 있다. 그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건설은 곧 자연의 파괴다.'라고 자연이라는 말을 넣으니 수월하게 이해가 된다. 인간은 자기의 편익을 위해서 자연을 제 맘대로 변화시킨다며 신이 만든 자연을 지나치게 변화(파괴)시키면 반드시 큰 재앙이 온다는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자연환경은 그야말로 Let it be, 한 마디로 죽하다. 그냥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환경을 위한 최선이다. 그렇다고 그 자연 속에 그냥 녹아 살기에는 너무 불편하지 않은가? 따라서 인간은 자연을 필요한 만큼만

변화(파괴)시켜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강의를 했던 분이 누구였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럼 건설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연의 파괴자란 말이며 이제 막 건설공부를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찬 물을 끼얹는다고 흥분했던 기억도 난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40년이나 건설에 종사하면서 먹고 살아 온 내가 새삼 '아, 이견 아니다.'라는 의식이 생겨났다. 필요한 만큼의 건설.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한 만큼의 파괴를 정당화하려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하고 시공하고 관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힘없는 우리 기술자가 제 혼자 힘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는 없었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게다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할 테니까 어차피 할 바엔 혼자 버티다가 불이익을 당하지나 말아야한다며 제 변명을 먼저하고 오히려 앞장 선 경우도 있었다. 그래야 몸보신도 하고 출세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 기술자는 저항하고 투쟁하면서 우리의 건설철학을 강력하게 지켜내지 못했을까? 환경을 생각하

고 피해를 줄려면 기왕의 건설비용보다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래도 싼 값에 마구잡이식의 건설을 지양하고 자연 환경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우리는 최근에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본다. 힘없는 노동자들이 노동 조합을 만들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투쟁한 결과 그들은 이제 아무도 만만히 대하지 못하는 막강한 힘을 지닌 조직으로 성장했다. 정당도 만들어서 제도권의 정치 무대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 건설인은 건설인 협회를 비롯하여 각종 전문업종의 협회도 많고 학회도 많다. 그런데 그 협회나 학회가 한 번이라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적이 있는가? 반대는 고사하고 고작해야 제 밥그릇을 지키려고 읍소나 하면서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않았는가? 이 건 좀 창피하다.

우리도 이제 제 목소리를 내야한다. 이런 일은 이래서 안 된다고 강력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건설의 설계단계부터 환경을 고려한다면 어느 다른 환경단체들이 집회를 열고 목소리를 높이며 시위를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정부의 삼질부대에서 환경보호운동가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정말 우리 후손을 위하고 우리 조국강산을 지켜내는 큰일에 나서보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나. 정부의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무리한 정책에 온 몸으로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지닌 그런 지도자가 하루 빨리 나와서 깃발을 들어주기를 기대한다. 젊고 참신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지도자가 기다려진다.